

유상호·김해준 등 장수CEO 많은 증권가... “실적이 곧 연임”

(한국투자증권 사장)

(교보증권 사장)

설 연휴 CEO 거취 결정 전망

유상호 ‘최장수’ 기록경신 다가서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장수 CEO로 불리는 두 증권사 CEO의 거취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은 지난해 증권사를 호실적으로 이끈데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최장수’ 기록 경신에 바짝 다가섰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어온 유 사장은 올해 큰 이변 없이 11연임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유 사장의 연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52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주식시장 호황과 더불어 투자은행(IB), 자산운용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결과다. 특히 증권사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2%로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중 단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주익수 하이투자증권 사장

연 최상위 성적이다.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유일하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따낸 점은 유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 해 1차 발행어음(5000억원)이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되면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단팻(Danpac) 증권사 지분(75%)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유 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 사장 역시 지난

2008년부터 교보증권을 이끌어 온 증권업계 대표적인 장수 CEO다. 지난해 교보증권이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을 기록하면서 5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

교보증권의 지난해 실적은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우수한 성적이다. 지난해 교보증권의 순이익은 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8% 증가했다. 연초 세웠던 목표치(640억원)를 크게 웃돌며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전년 대비 0.93%포인트 상승한 9.29%를 기록했다.

김 사장이 역점을 두고 시작한 ‘신사업’도 성공적이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인하우스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했다.

인하우스 헤지펀드란 증권사가 내부 자금을 활용해 헤지펀드(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김 사장이 헤지펀드 담당인력을 늘리고, 채권 운용 전문성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월 말 기준 교보증권의 인하우스 헤지펀드 운용자산은 1조5553억원으로 2위 NH투자증권(4524억원)을 3배 이상 앞서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여타 증권사 CEO들의 거취도 결정될 전망이다.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3연임이 긍정적이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역시 김정태 하나금융

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주익수 하이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여부는 불확실하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임추위를 구성해 차기 사장단 후보를 추린 상태다.

이에 정영채 투자은행(IB)부문 대표(부사장), 김광훈 부사장의 내부승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 사장은 오는 3월 DGB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의 인수를 마무리 함과 동시에 임기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인수절차가 미뤄지면서 주 사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설을 맞아 이웃들에게 전달할 명절음식을 만들고 있다.

한화건설 설 맞이 나눔봉사로 온정 나뉜

한화건설은 지난 12일 설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유영인 재무실장과 이윤식 경영지원실장 등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각각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명절음식을 만들고, 명절 선물세트를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봉사활동을 진행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꿈에그린 도서관 62호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꿈에그린 도서관 66호점이다.

‘꿈에그린 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와

함께 7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화건설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화건설은 2011년 서대문구 흥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0개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4만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한화건설 임직원들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기존 공간 철거와 불박이장 조립, 페인트 칠 등에 함께 참여하고 도서와 책상, 의자 등을 함께 지원해 독서뿐만 아니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이윤식 경영지원실장은 “올해도 건설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동을 지속해 나가자”며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전달한 명절음식과 선물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하나금융투자-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1Q폰’ 출시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갤럭시 노트8 1Q폰’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중심의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증권 거래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사가 준비한 협업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갤럭시 노트8 1Q폰’은 기존 ‘삼성 갤럭시 노트8’ 모델에 하나금융투자가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들을 기본으로

탑재하였고, 또한 향후 출시예정인 ‘갤럭시 S9’을 활용한 모델도 준비중이다. 하나금융투자의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인 ‘1Q MTS’를 비롯하여 증권SNS인 ‘SSA M’,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 ‘Ahnlab V3’를 *삼성 Knox Configure 솔루션을 활용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 곳곳에서 하나금융투자만의 정취를 엿볼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지난달 외국인 주식·채권 5.5兆 순매수

전년 말 순매도서 매수 우위로 전환

외국인들이 지난달 주식·채권 모두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인 상장주식 3조237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 2조322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559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과 채권 모두 전년 말 순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조8000억원, 4000억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7000억원), 유럽(1조2000억원), 미국(1조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중동(-2000억원)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1조4000억원), 미국(1조원), 영국(4000억원) 등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1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결계기준)

구분	'16년	'17년	상반기	하반기	'18년	1월	보유잔고
주식	12,109	10,180	10,894	△714	3,237	3,237	658,792
채권	△12,342	9,447	14,520	△5,073	2,322	2,322	100,875
합계	△233	19,627	25,414	△5,787	5,559	5,559	759,667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규모는 658조8000억원이다.

미국이 273조8000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 ▲유럽 184조2000억원(28.0%) ▲아시아 80조8000억원(12.3%) ▲중동 27조3000억원(4.1%) 순이다.

지난달 외국인인 상장채권 4조615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3220억원을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총 100조9000억원으로 100조원 대에 재진입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5000억원), 미

주(8000억원), 유럽(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4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고 ▲유럽 31조2000억원(30.9%) ▲미주 12조2000억원(12.1%) 순이다.

종류별로는 통안채(1조3000억원) 및 국채(1조원)에 각각 1조원 넘게 순투자했으며, 보유잔고는 국채 79조3000억원(전체의 78.6%), 통안채 20조9000억원(20.7%) 순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감독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건수	12	3	5	5
포상금액	10,410	5,900	12,075	8,727
평균금액	868	1,967	2,415	1,745

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사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융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